

- 최우수상 -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강릉단오제”

강릉단오제에 대한 지역학생들의 의식조사연구

학 교 (학 과)	강릉대학교 (사학과)
학 년	4학년
성 명	박 부 원
E-mail	sadboowon@naver.com
연 락 처	010-7305-6645

강릉 단오제

강릉단오제에 대한 지역학생들의 의식조사연구

요 약

천년을 이어온 강릉단오제가 지난 2005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어 인류가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 됨에 따라 축제의 주인이며, 강릉을 이끌고 지켜나가는 강릉시민들의 의식은 어떤지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임의표본 추출방법(Purposive Sampling)에 의해 지역학생 100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4개영역(인적사항, 단오제에 대한 관심도, 인지도, 학습매체) 총 23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에 의해 일대일 개별 면접법(Face-To-Interview)으로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강릉지역 학생들은 강릉단오제에 대해 학생들의 90%이상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그러한 관심은 유락시설과 경축행사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지도 영역에서는 총 7문제 중 평균 3.03점으로 강릉단오제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범일국사’에 대하여 묻는 문항에서는 고등학생의 65%가 ‘울곡이이’로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단오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정규수업이나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문화원 등의 관련단체를 통하여 습득한 경우는 저조하였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강릉단오제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시각과 관심을 방치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 서론

- 조사 개요 -

1. 연구배경

강릉단오제는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로 발전해왔으며, 비교적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강릉단오제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통해 강릉시의 지역정체성 형성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높은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의 창출과 지역사회의 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¹⁾

하지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강릉단오제의 이면에는 우리에게서 점차 멀어져 가는 것들도 있다. 강릉의 옛말인 「임영(臨瀛)」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낯선 지명이 되었고, 농부들이 힘겨운 노동을 하며 입에서 흘러나오는 민요 가락들 또한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최근 인구의 도시 집중과 이농현상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 격차가 커지면서 향토애가 날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과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글로벌화의 구호 속에 전통적인 지역문화와 고유의 풍습은 소외되거나 무시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주대 이해준 교수에 의하면,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회 현상과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지역 사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나아가 사회과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자질을 육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라나는 제 2세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체험을 통한 교육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 한다.²⁾

이해준 교수의 말처럼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을 학습하게 된 학생들의 경험과 지역에 대한 이해는 자기 고장을 자랑하는 의식이 짝트게 될 것이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향토발전을 이루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강릉단오제에 대한 설문조사연구는 일반시민, 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되었지만, 본 논문은 지금까지 연구³⁾와는 다르게

1) 강릉단오제위원회. <2003 강릉단오제 개선방안에 대한 축제평가 학술조사>. 2003. p.2.

2) 이해준. <지역문화 연구의 과제와 자료 활용 방향>. 공주대, 2004. p.150.

현재 강릉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강릉단오제에 대한 의식은 어떤가를 중점으로 조사연구 하였다.

이에 강릉시청이나 강릉문화원,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같은 강릉지역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함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들은 지역학생들이 앞으로 그 소속 지역 사회 발전의 일익을 크게 담당할 것이란 것을 자각하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가지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의 선행과제는 현재 지역학생들의 의식이 어떤지에 대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고장 강릉의 훌륭한 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가 세계인의 민속축제로서 도약의 계기가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역학생들은 강릉단오제에 대해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자료를 분석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조사 목적

천년을 이어온 강릉단오제가 지난 2005년 11월 25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어 명실 공히 인류가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강릉단오제를 현재까지 이끌어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 강릉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조사는 강릉시민들 중에서 강릉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등·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학생들이 그 지역사회의 전통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우리의 것을 얼마나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인지도와 관심도, 참여도, 전통문화에 대한 학습매체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어렵게 지정된 고귀한 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가 좀 더 전통문화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본 조사와 비슷한 성격의 단행본으로 현재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2년마다 『강릉단오제 개선방안에 대한 축제평가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강릉단오제 중장기 발전방안』이 있다. 논문으로는 김태경의 「탈근대시대의 강릉단오제」. 강원도민속학회, 2003. 등이 있지만, 위의 단행본과 논문은 불특정 소수의 방문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본 논문은 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조사 설계

-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자 : 강릉지역

대학생 500명, 고교생 500명의 학생 남·여⁴⁾

- 표본 크기 : 1000명
-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일대일 개별 면접법 (Face-To-Interview)
- 최대허용 오차 : 95%의 신뢰수준에서 $\pm 2.5\%$
- 조사기간 : 2월 13일 ~ 3월 5일
- 표본추출방법
 - i.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 ii.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문항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 iii. 그래프 작성은 Microsoft Office Excel 2003과 Power Point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4. 조사 방법

본 조사는 임의표본 추출방법(Purposive Sampling)에 의해 총 1090명의 지역학생들을 임의로 추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일대일 개별 면접법(Face-To-interview)’에 의해 실시하였고, 실제 분석에 이용된 유효표본 수는 1000개였다.

조사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5일(설날제외)까지 18일간이었으며, 설문도중 2007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타 지역에서 온 경우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하여 강릉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하이면서 단오제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유효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100%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본 조사는 다른 지역 출신이라도 현재 강릉에서 거주하며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강릉출신의 거주자가 많아 강릉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비교·분석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예로 <표 II-3>에서 보면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강릉출신의 학생이 약 2배정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설문조사 항목체계

이번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자체 개발하였으며 4개영역(인적사항, 관심도, 인지도, 학습매체, 기타)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출생지, 강릉에서의 거주기간에 대한 것을 물어보았고, 강릉단오제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것에 대한 인지여부와 보통 단오제에 참여하는 시간대, 단오제 행사 중 가장 흥미도가 높은 프로그램, 해외공연단의 관심도를 물어보았다.

학습매체에서는 강릉단오제나 강릉지역 문화유산에 대하여 고등·대학교에서의 습득 여부를 다루었으며, 이와 더불어 만일 고등·대학교에서 전통문화에 대하여 익힐 기회가 충분치 않다면 그 이유를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인지도를 측정하는 영역에서는 2006년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배포한 리플렛을 기초로 하여 강릉단오제의 <민속, 민요, 인물, 전설>등의 7문항을 만들어 테스트하여 학력별, 성별,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집에서 학교까지의 교통수단과 인지도를 측정한 7문항의 난이도, 강릉지역의 유적·명승지의 방문여부를 조사하였다.

구분	조사내용	세부설문항목
응답대상	인구통계학적특성	성별/ 출생지/ 거주기간/ 교통수단
관심도 (참여도)	축제참여형태	유네스코 등록 인지여부/ 참여 시간대
	행사프로그램	단오제프로그램/ 해외 공연단
학습매체	학교교육형태	단오제 및 전통문화 습득여부
	축제 정보원	<대중매체, 인터넷, 학교교육, 주위사람, 관련단체>
인지도	단오 팸플렛	<민요, 인물, 전설, 민속>
기타	부수적 조사	교통수단/ 문제난이도 / 지역유적명승지 방문여부

<표 II-1 설문지의 구성>

(※ 각 영역의 도표에서 응답자 수가 1000명이 안되는 경우는 응답자가 해당문제에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응답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II. 본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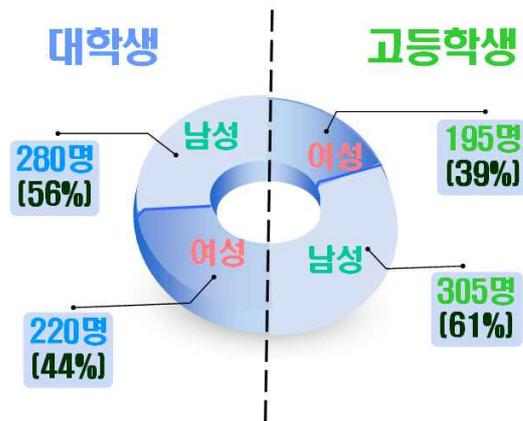
-조사결과 분석-

1. 인적조사 분석 - 학력, 남녀, 지역별 응답자

강릉지역의 3개 대학교(강릉, 관동, 영동전문대)와 8개 지역 고등학교(강릉고, 명륜고, 강릉여고, 강일여고, 경포고, 문성고, 강릉농공고, 제일고) 학생 각각 500명씩 총 1000명을 조사하였다.



<그림 II-1 응답자 구분>



<그림 II-2 남녀별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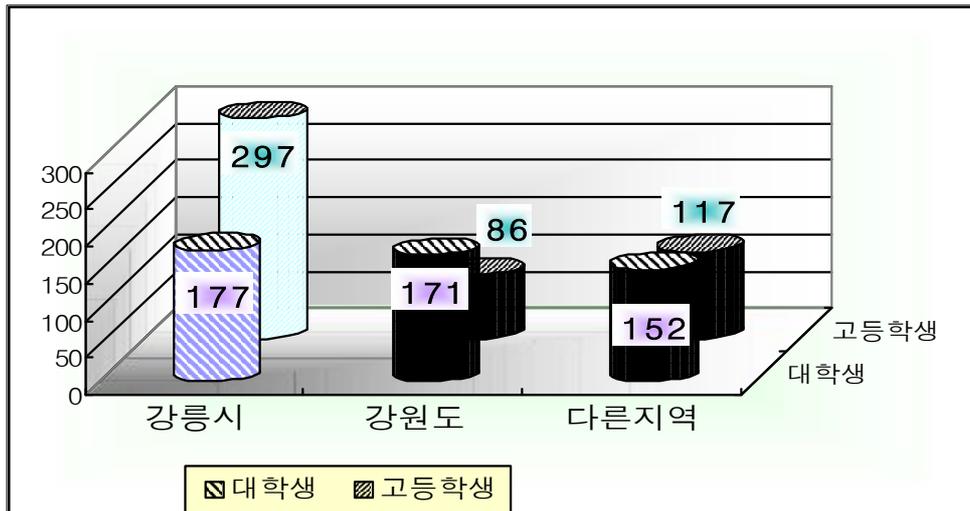
일대일 개별 면접법(Face-To-Interview)에 의하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한 관계로 남녀성비의 균형을 맞추지는 못하였다. 응답자 전체 중 남자는 585명(58.5%)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415(41.5%)명으로 남자가 약 17%정도 많이 응답하였고,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에서 남자응답자가 11%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남녀별 응답비율이 적절하지 못하여 신뢰도가 불분명하므로 성별분석은 제외하였다.

구 분	성 별		전 체 (100%)
	남 자	여 자	
대 학 생	280(56%)	220(44%)	500(100%)
고 등 학 생	305(61%)	195(39%)	500(100%)
전 체	585	415	1000

<표 II-2 응답자 구분>

강릉대학교, 관동대학교, 영동전문대학교가 대상이었던 대학생은 태어난 곳이 강릉시, 강릉시외 강원도, 그 밖의 다른 지역의 학생은 35.4%, 34.2%, 30.4% 으로 나타나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강릉시가 5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 응답자 구분별 태어난 곳>

구분	응답자 출생지별 구분		
	강릉시	강원도	다른 지역
대학생	177(35.4%)	171(34.2%)	152(30.4%)
고등학생	297(59.4%)	86(17.2%)	117(23.4%)

<표 II-3 응답자 출생지별 구분>

2. 강릉단오제에 대한 관심도 분석

가) 유네스코 등록여부의 인식 (학력, 지역별)

강릉단오제의 관심도는 기본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가 지난 2005년 11월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등록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그 결과 대학생의 77.6%, 고등학생의 80.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약 80%의 학생들이 유네스코 등록을 알고 있었고, 유네스코의 등록여부는 학력에 상관없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구 분	유네스코 등록		전 체 (100%)
	모른다.	알고 있다.	
대 학 생	112(22.4%)	388(77.6%)	500
고등학생	97(19.4%)	403(80.6%)	500
전 체	209(20.9%)	791(79.1%)	1000

<표 II-4 학력별 유네스코 등록 인지여부>

강릉지역과 타지역간 유네스코의 등록여부의 인식여부를 비교해 본 결과 강릉출신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 출신의 학생들보다 10%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강릉출신의 학생들의 15% 정도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유네스코 등록		전 체
	모른다.	알고 있다.	
강 령	72(15.1%)	402(84.9%)	474(100%)
다른 지역	137(26%)	389(74%)	52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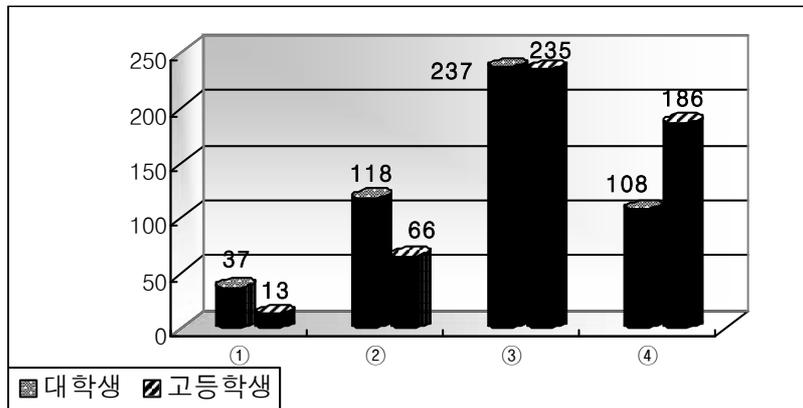
<표 II-5 출생지별 유네스코 등록 인지여부>

출생지가 강릉인 학생들의 약 84.8%가 유네스코 등록 여부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지역 출신의 평균 74% 정도의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 단오제 참여 여부

강릉단오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측정을 하는 문항이었다. 학생들의 95% 정도가 단오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97% 정도의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대학생들의 47.4%, 고등학생의 47%가 가능한 가는 편이라고 응답했고, 대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가보지 않은 학생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 30%는 매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학생의 70% 이상이 가능한 단오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 단오제 참여 여부>

구분	단오제 참여 여부				전체 (100%)
	①가본 적 없다	②가고 싶지만 못가는 편이다	③가능한 가는 편이다	④매년 참여한다	
대학생	37(7.4%)	118(23.6%)	237(47.4%)	108(21.6%)	500
고등학생	13(2.6%)	66(13.2%)	235(47%)	186(37.2%)	500
전체	50(5%)	184(18.4%)	472(47.2%)	294(29.4%)	1000

<표 II-6 단오제 참여 여부>

출생지별로 단오제의 참여여부를 조사한 결과 강릉지역 출생지 학생의 86%정도가 가능한 참여하는 편으로 나타났고, 단오제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가 9명가량 있었다. 다른 지역 출생의 경우 약 70%정도가 가능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년 참여하는 비율이 강릉지역 학생의 경우가 22%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출생지별 단오제 참여 여부				전체
	가본 적 없다	못 가는 편이다	가능한 간다	매년 간다	
강릉	9(2%)	56(12%)	210(44%)	199(42%)	474(100%)
다른 지역	41(7%)	128(24%)	262(50%)	95(19%)	526(100%)
전체	50	184	472	29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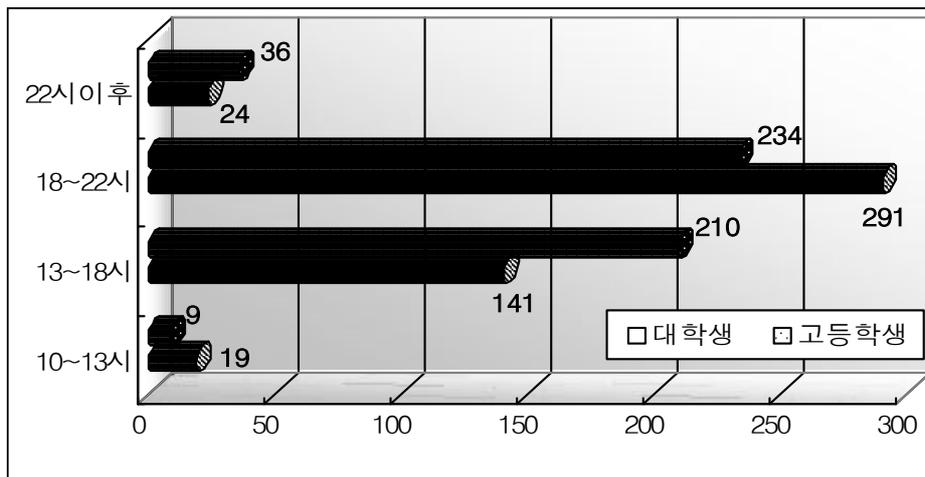
<표 II-7 출생지별 단오제 참여여부>

다) 강릉단오제에 방문하는 시간대

강릉단오제에 몇 시 정도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지 알아본 후 학생들을 위한 공연프로그램을 조정하는데 참조자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문항을 제시하였다.

대학생들의 약 60%와 고등학생의 약 49%는 18~22시에 단오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60%이상이 18시 이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이 참여하는 시간대로는 13~18시, 22시 이후, 10~13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 방문 시간대>

전체 학생수의 90%정도가 13시부터 22시 사이에 단오장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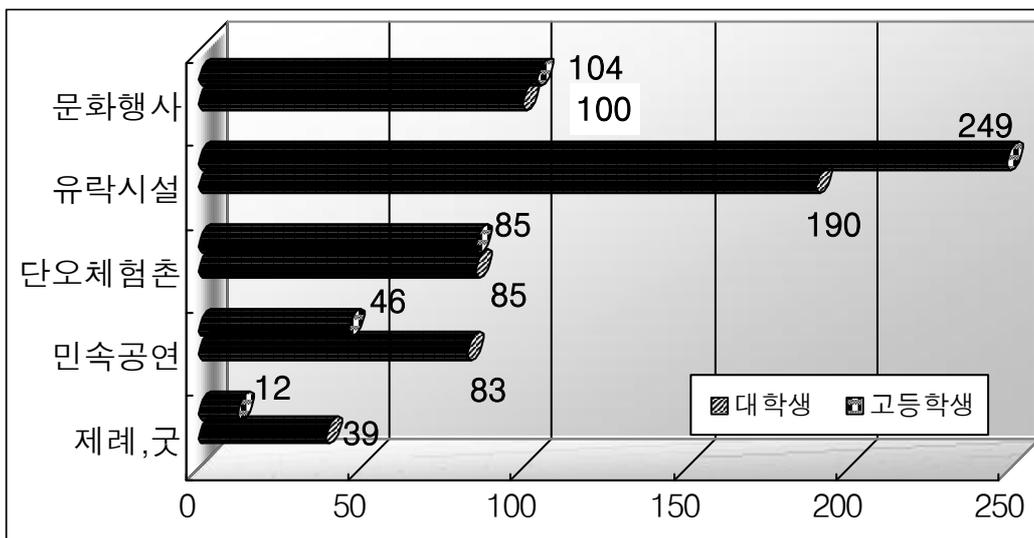
구 분	방문 시간대				전 체 (100%)
	10시~ 13시	13시~ 18시	18시~ 22시	22시 이후	
대 학 생	19(4%)	141(29.2%)	291(60.4%)	24(5%)	500
고등학생	9(1.6%)	210(43.6%)	234(48.6%)	36(7.4%)	500
전 체	27(2.8%)	351(36.4%)	525(54.5%)	60(6.2%)	1000

<표 II-8 방문 시간대>

라) 단오제 행사의 흥미도

지역학생들이 강릉단오제에 참여하는 주된 관심도를 측정하여 현재 학생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단오제 행사 중 가장 관심 있는 것으로는 난장내의 각종 오락, 게임, 물건사기, 사람구경 등 유락(遊樂)시설이라고 38.2%의 대학생들이 응답하였고, 사투리경연대회, 경축행사, 불꽃놀이, 해외민속 공연단 등의 문화행사가 20.2%, 단오체험촌 17.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6 단오제 행사의 흥미도>

구 분	단오제 행사 행사의 흥미도					전 체 (100%)
	제례, 굿	민속공연	단오체험촌	유락시설	문화행사	
대 학 생	39(7.8%)	83(16.8%)	85(17.2%)	190(38.2%)	100(20.2%)	497
고등학생	12(2.4%)	46(9.2%)	85(17.2%)	249(50.2%)	104(21%)	496
전 체	51(5.1%)	129(13%)	170(17.1%)	439(44.2%)	204(20.5%)	993

<표 II-9 단오제 행사의 흥미도>

고등학생들은 또한 유락시설에 가장 관심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무려 50%가 넘는 학생들이 유락시설이라고 응답하였다. 대학생, 고등학생 모두 단오 굿과 제례에는 관심이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강릉단오제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어 주고 주제반영도가 높은 단오 굿과 제례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유락시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생들의 인식이 상업적·향락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⁵⁾라고 할 수 있다.

마) 해외 공연단에 대한 관심도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교류를 통하여 강릉을 세계무형유산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강릉단오제의 원형을 토대로 세계인의 문화축제의 장으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⁶⁾으로 해외공연단을 초청하고 있다.⁷⁾

이에 강릉지역학생들은 세계 각국에서 초청되는 해외공연단의 공연에 대하여 어떠한

5) (사)강릉단오제위원회의 『2003년 강릉단오제 개선방안에 대한 축제평가 학술조사』 내용 중 프로그램 집단별 흥미도를 분석한 표(pp.68-71.)를 참조하면, 단오 굿은 집단별 흥미도에서 21.4%정도(4위)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 표는 <프로그램 흥미도 변화추이>와 <연령별 프로그램 흥미도>의 일부를 발췌하여, 일부분만 나타내었다.

구 분	2000년	2001년	2003년	20대 이하
단오 굿	4 위	1 위	2 위	5 위

<표 II-10 프로그램 흥미도 변화추이와 연령별 흥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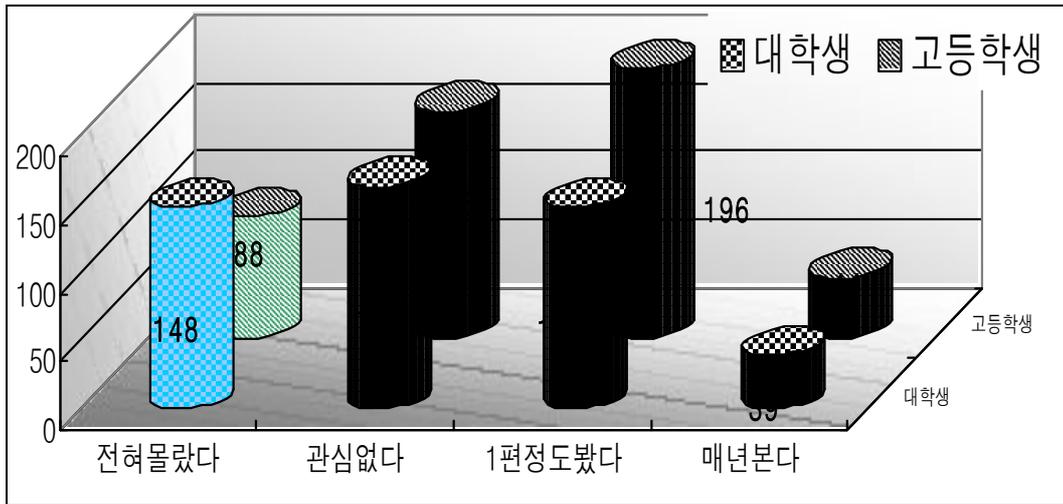
단오 굿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0여개의 프로그램 중, 흥미도를 묻는 문항에서 4위, 1위, 2위로 나타났고 2003년에 20대 이하 흥미도에서 5위를 하였지만, 2007년에 단오 굿과 제례는 5.1%로 나타났다.

6)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제공.

7) 최근 2년간 초청된 국가들.

- 2005년 -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공연단, 체코: 볼크노브얀 공연단, 이집트: 칼라비아주공연단.
 - 2006년 - 베트남: 나낙 베트남 왕실공연, 멕시코: 사자에게 바치는 원주민 축제, 에스토니아 : 문화의 공간 타누섬, 터키: 아이디르지역 민속댄스, 중국 강서성: 강서나희, 호북성 형주시: 군예관 무관, 철강성 가흥시: 태극권 무술, 사천성: 양가무술 등
- (사)강릉단오제위원회, 『2005, 2006년 결산보고서』, 해외공연단 초청공연 리플렛 참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II-7 해외 공연단에 대한 관심도>

구 분	해외공연단에 대한 관심도				전 체 (100%)
	전혀 몰랐다.	관심 없다.	1편정도 봤다.	매년 본다.	
대 학 생	148(29.8%)	163(32.8%)	147(29.6%)	39(7.8%)	497
고등학생	88(17.8%)	166(33.6%)	196(39.6%)	44(8.8%)	494
전 체	236(23.8%)	329(33.2%)	343(34.6%)	83(8.4%)	991

<표 II-11 해외 공연단에 대한 관심도>

전체 학생들의 34.6%는 한편 정도 보았다고 응답하였고, 관심 없다고 응답한 학생 또한 33.2%로 나타났다. 대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하여 해외공연단에 대해 11%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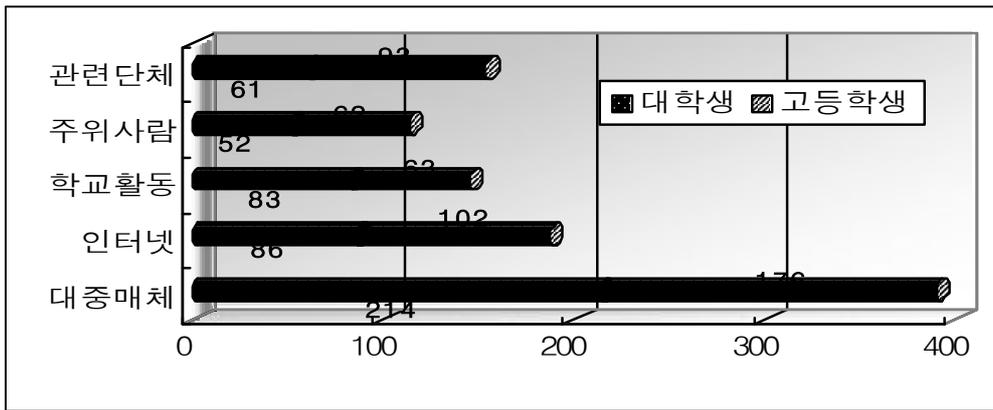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해외공연단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학생은 대학생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1편정도 본 학생이 대학생에 비해 약 10% 정도 많은 걸로 나타났다.

설문도중 ‘매년 본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공연에 대하여 구두(口頭)로써 조사한 결과, 20명 중 7명 정도가 아프리카 공연단(케냐)의 공연이 인상 깊었다고 응답하였고, 중국 강서성 공연, 터키 아이데르 민속댄스가 기억에 남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3. 강릉단오제에 대한 학습매체

가) 학습매체 유형

학생들이 강릉단오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한 정보매체로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의 영향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인터넷(19%)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생들의 58.3%가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그림 II-8 학습매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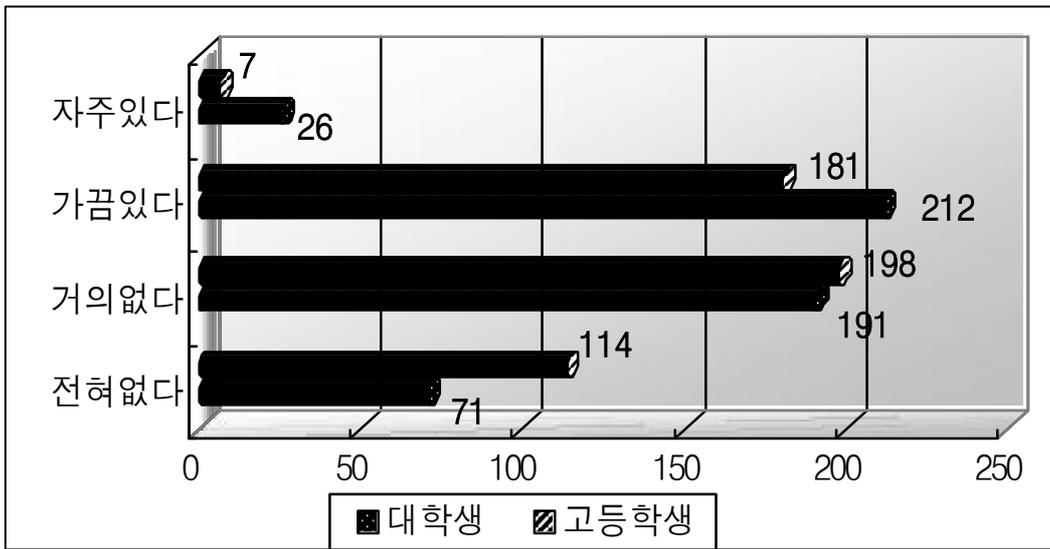
구 분	강릉단오제에 대한 학습매체 유형					전 체 (100%)
	대중매체	인 터 넷	학교활동	주위사람	관련단체	
대 학 생	214(43.2%)	86(17.4%)	83(16.8%)	52(10.4%)	61(12.2%)	496
고등학생	176(35.4%)	102(20.6%)	63(12.8%)	62(12.6%)	93(18.8%)	496
전 체	390(39.3%)	188(19%)	146(14.7%)	114(11.5%)	154(15.5%)	992

<표 II-12 학습매체 유형>

학교 동아리나 학교교육을 통하여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146명으로 전체 14.7%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및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관련단체와 학교, 교육청과 연계하여 지역문화를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학교교육 여부

“평소 고등대학교 수업을 통하여 강릉의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을 배울 기회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학교 수업을 통해 강릉 전통문화를 가끔 배웠다고 응답한 학생은 대학생이 42.4%로 고등학생 36.2%에 비해 6.2%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들은 자주 배웠다고 응답한 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많았지만 고등학생들은 대학생에 비해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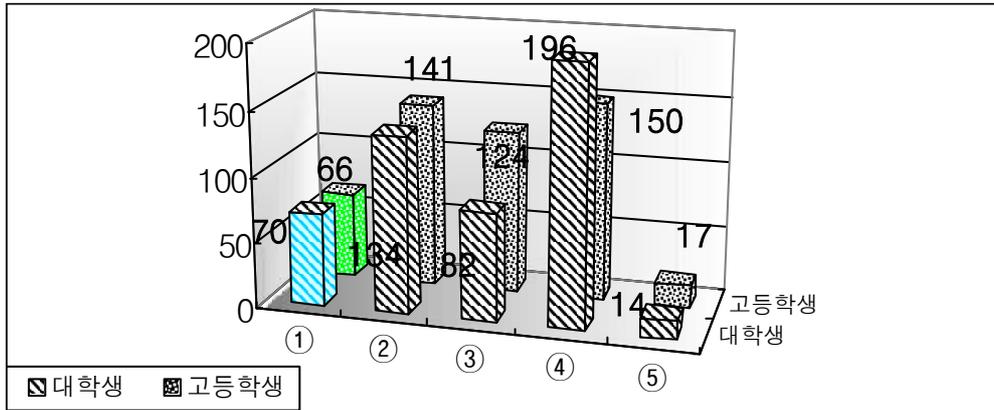
<그림 II-9 수업을 통해 강릉 전통문화 학습 경험>

구 분	수업을 통해 강릉 전통문화 학습 경험				전 체 (100%)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대 학 생	71(14.2%)	191(38.2%)	212(42.4%)	26(5.2%)	500
고등학생	114(22.8%)	198(39.6%)	181(36.2%)	7(1.4%)	500
전 체	185(18.5%)	389(38.9%)	393(39.3%)	33(3.3%)	1000

<표 II-13 수업을 통해 강릉 전통문화 학습 경험>

다) 전통문화에 대해 익힐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고등대학교 수업에서 전통문화에 대해 익힐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라는 물음에 모든 학생들의 34.8%정도가 ‘본인의 관심과 흥미 부족’ 이라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교과과정에 없기 때문’ 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27.7%로 뒤를 이었다. ‘학점, 시험에 도움이 안 된다’ 고 응답한 학생은 대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약 9%정도 많이 응답하였다.



<그림 II-10 전통문화에 대해 습득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구분	전통문화에 대해 익힐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전체 (100%)
	① 동아리 부족	② 교과과정 누락	③ 학점, 시험에 도움 안됨	④ 관심, 흥미 부족	⑤ 기타	
대학생	70(14%)	134(27%)	82(16.4%)	196(39.4%)	14(28%)	496
고등학생	66(13.2%)	141(28.4%)	124(25%)	150(30.2%)	17(3.4%)	498
전체	136(13.7%)	275(27.7%)	206(20.7%)	346(34.8%)	31(3.1%)	994

<표 II-14 전통문화에 대해 습득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기타의견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때문에 가기 어려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음’, ‘공부만 강요함’,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선생님들도 전혀 관심 없음’ 등 고등학교 수업이 전통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고, 대학진학의 문제와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전통문화 습득의 기회가 적었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관련단체의 적극적 홍보부족’, ‘대학교에서 전통문화 강의에 대한 수업이 빈약함’, ‘전통문화보다는 취업이 우선’ 등의 기타 의견이 있었다.

라) (사)강릉단오제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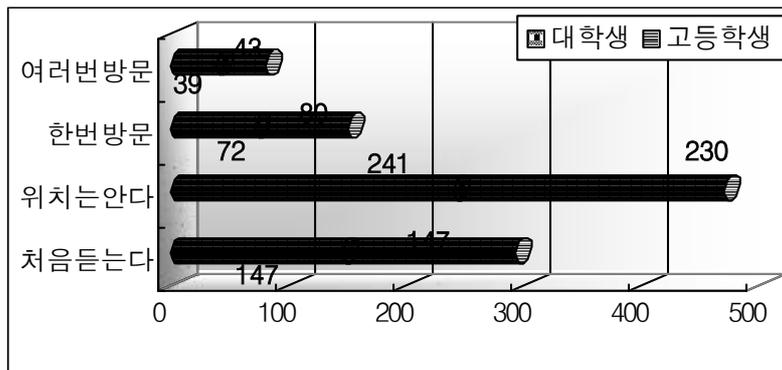
(사)강릉단오제위원회는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강릉단오제 축제의 개최·운영 및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통하여, 강릉단오문화를 전승·보존하고, 강릉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⁸⁾

강릉단오제에 담긴 역사, 문화, 예술적 정신을 지역주민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연중 홍보하기 위하여 단오문화관과 단오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여부와 방문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단오문화관 방문여부

단오문화관은 단오제 전승과 예술성 함양, 일반인에게 연중 단오제를 교육시키는 중심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조성하였다.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는 단오문화관의 공연 및 운영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연중 단오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정책⁹⁾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약 100억원이 투입되어 건립된 강릉단오제위원회의 단오문화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인식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1 단오 문화관 방문 여부>

학생들의 23%정도만이 한번이상 단오문화관에 방문해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제 학생의 30%는 단오문화관을 처음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출신의 고등학생이 60%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¹⁰⁾ 고등학생의 30%가 단오문화관을 처음 듣는다고 하였다.

8)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정관> 참조.

9) (사)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전통문화음악교실(단오음악반, 장단반, 무용반, 민요반, 태평소반, 모듬북반 등)을 운영 중이고 각종 공연·행사시 공연장을 대관해주고 있음.

10) <표 II-3 출생지별 응답자 구분>참조.

구분	단오 문화관 방문 여부				전체 (100%)
	처음 듣는다	위치는 안다	한번 방문	여러 번 방문	
대학생	147(29.4%)	241(48.2%)	72(14.4%)	39(7.8%)	499
고등학생	147(29.4%)	230(46%)	80(16%)	43(8.6%)	500
전체	294(29.4%)	471(47.1%)	152(15.2%)	82(8.2%)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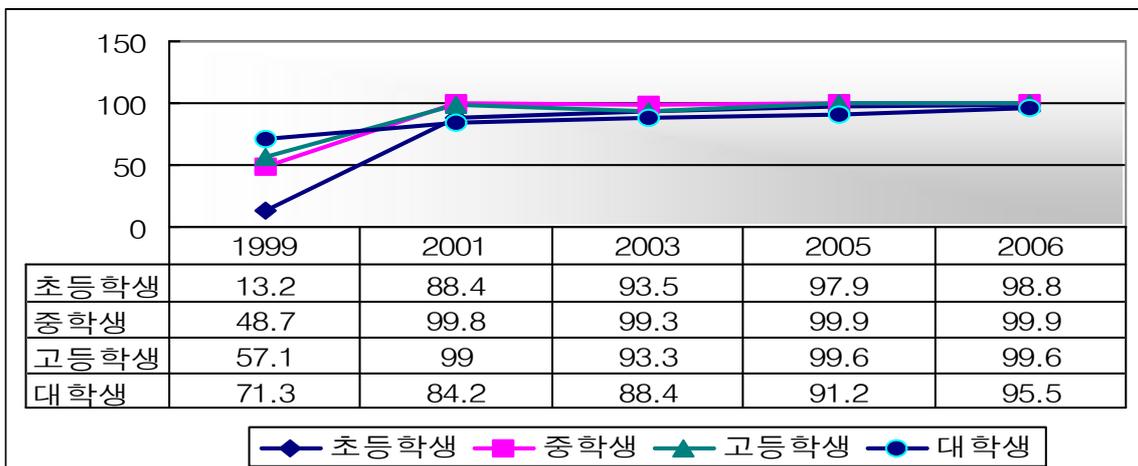
<표 II-15 단오 문화관 방문 여부>

약 47%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단오 문화관을 방문해보지는 않았으나 위치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학생의 76%가 방문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강릉단오제위원회의 단오문화관이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하다면, 교육청과 지역관할 학교와의 연계를 통하여 관심을 이끌어 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단오사이트 방문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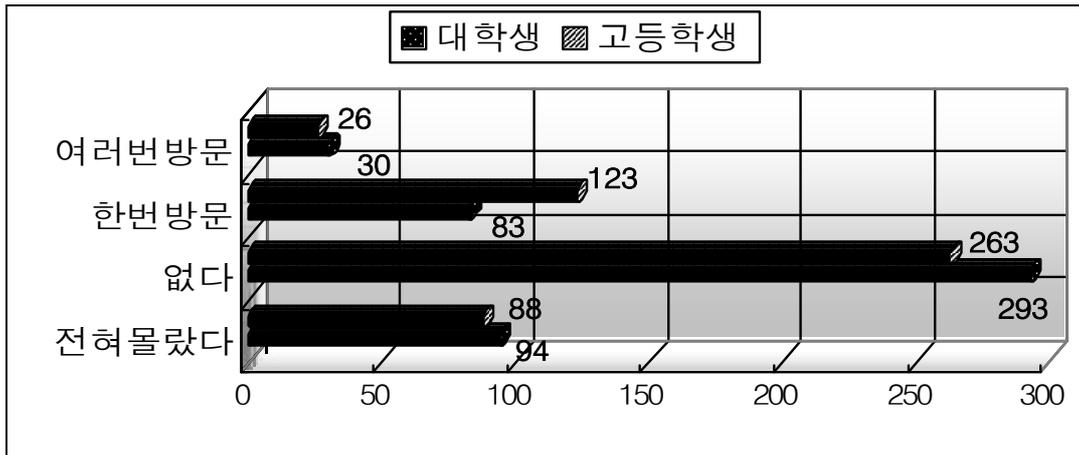
「2007년 2월 5일 해럴드경제 사회면」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정보화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대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1999년부터 2001년도 사이에 폭등하여 거의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 초등학생은 98.8%, 중학생은 99.9%, 고등학생은 99.6%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하였다.¹¹⁾



<그림 II-12 해럴드 경제 사회면 기사>

11) 전창협. 「E-세상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률」. HERALD MEDIA(해럴드 경제) 사회면 기사, 2007년 2월 5일.

이와 같은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률은 단오제위원회에서 간과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인터넷 사용률에 근거하여 강릉지역 학생들은 단오홈페이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았다.



<그림 II-13 단오제 관련 홈페이지 방문 여부>

구분	단오제 관련 홈페이지 방문 여부				전체 (100%)
	전혀 몰랐다.	없다.	한번 방문	여러 번 방문	
대학생	94(18.8%)	293(58.6%)	83(16.6%)	30(6%)	500
고등학생	88(17.6%)	263(52.6%)	123(24.6%)	26(5.2%)	500
전체	182(18.2%)	556(55.6%)	206(20.6%)	56(5.6%)	1000

<표 II-16 단오제 관련 홈페이지 방문 여부>

학생들의 절반이 넘는 55.6%의 학생들이 단오제 관련 홈페이지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혀 모르는 학생들 또한 약 20%에 다다랐다. 단오홈페이지에 한번 방문한 학생들 또한 약 20%정도로 저조하였고, 전체적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한번 방문한 학생과 여러 번 방문한 학생의 수가 차이가 큰 것은 사이트 운영상의 문제도 지적해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사이트를 홍보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단오제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단오문화관과 단오 홈페이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여부와 방문여부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지역 발전만 도모할 것이 아니라 전승·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Motive)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티브(Motive)의 첫 단계는 바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며 그러한 관심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체의 역할을 단오문화관과 단오홈페이지에서 담당하여야 할 몫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처럼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을 경우 외면 받을 수 있으므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현실 감각이 가미된 단오제 발전이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

4. 강릉단오제의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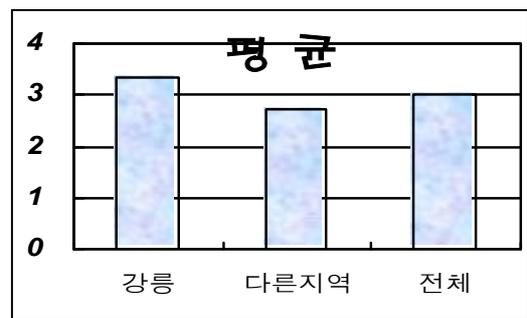
- 영역별 결과분석 -

강릉단오제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단오제와 연관된 「민속·민요·전설·인물」을 단오제 위원회에서 2006년 단오기간에 배포한 팜플렛의 내용을 바탕으로 7 문항을 작성하여 테스트하였다.

그 결과 평균점수가 3.03점(7점 만점)으로 나타나 강릉단오제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다른 지역출신의 학생의 평균 2.74점(7점 만점)에 비하여 강릉출신의 학생이 3.32점(7점 만점)으로 0.58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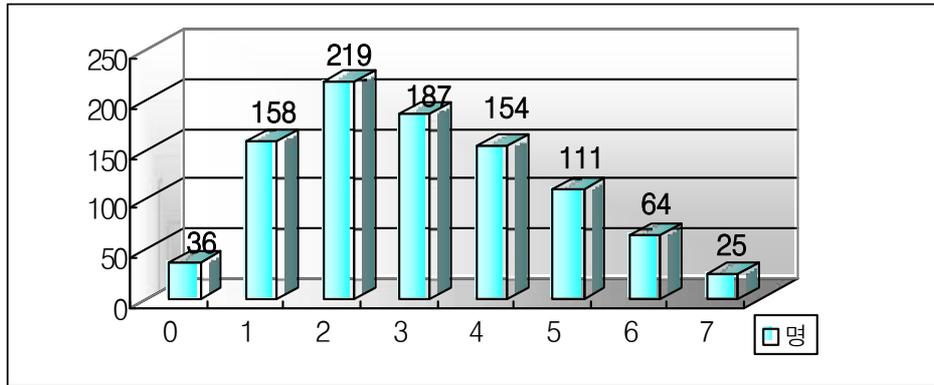
구 분	평 균	응답자 수
강 령	3.32	474
다른 지역	2.74	526
전 체	3.03	1000

<표 II-17 인지도의 7문제 평균>



<그림 II-14 인지도의 7문제>

단오제의 인지도를 측정한 「민속·민요·전설·인물」 등에 대하여 묻는 7문제를 모두 맞춘 학생은 25명에 불과하였고, 단 한문제도 맞추지 못한 학생은 3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문항을 맞춘 학생수가 가장 많았다.



<그림 II-15 인지도 영역의 정답인원 분포도>

가. 역사, 인물영역 분석

이 분야는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배포한 팜플렛 내용 중에서 발췌하여 분석에 이용되었다. 【우리나라 최고(最高), 최대(最大)의 민속축제】라는 내용에서 단오제의 시기를 물어보는 문항을 출제하였고, 단오제에서 제사의 대상이며 주신(主神)인 범일국사는 【제사의 대상】의 내용에서 발췌를 하여 인물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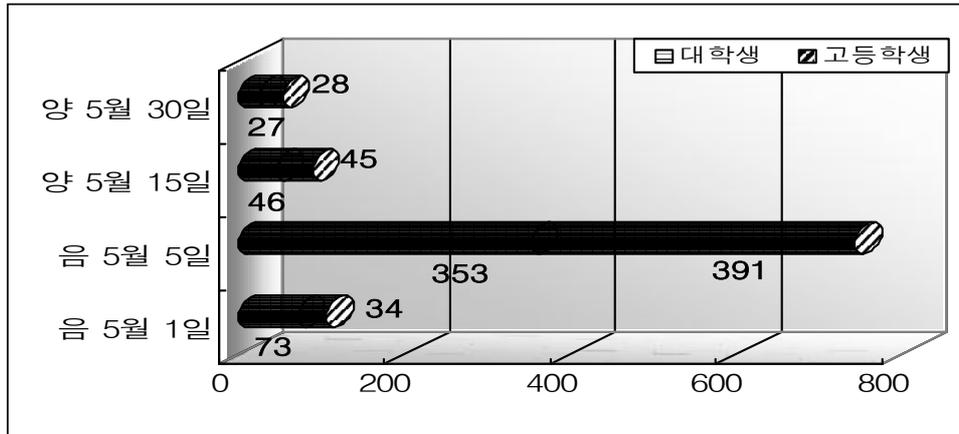
단오제의 시기를 물어본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74.6%)을 보였던 반면, 제사의 대상이 되는 범일국사를 묻는 문항에서는 가장 많은 오답률(70%)이 나타났다.

문항	정답률	오답률	전체 (100%)
단오제가 열리는 시기	744(74.6%)	253(25.4%)	997
제사의 대상	319(32.2%)	671(67.8%)	990

<표 II-18 단오제 시기와 제사의 대상 정답률 비교>

(1) 강릉단오제의 시기

먼저 단오제의 시기를 물어보는 문항은 전체 74.6%의 학생들이 단오제가 열리는 정확한 시기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음력 5월 1일이나 양력 5월 15일로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은 약 20%정도였으며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정답률이 약간 높았으며, 잘못 알고 있는 날짜로는 음력 5월 1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6 단오제가 열리는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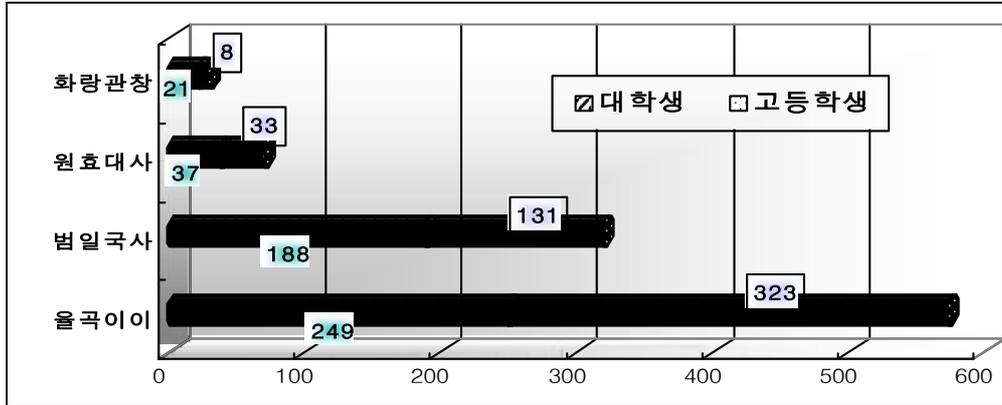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단오제가 열리는 시기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이 문항은 여학생(60.6%)보다 남학생(88.6%)이 정답률이 높았으며, 출생지별로 강릉지역과 다른 지역을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구 분	단오제가 열리는 시기				전 체 (100%)
	음력 5월 1일	음력 5월 5일	양력 5월 15일	양력 5월 30일	
대 학 생	73(14.6%)	353(70.8%)	46(9.2%)	27(5.4%)	499
고등학생	34(6.8%)	391(78.4%)	45(9%)	28(5.6%)	498
전 체	107(10.7%)	744(74.6%)	91(9.1%)	55(5.5%)	997

<표 II-19 단오제가 열리는 시기>

(2) 제사의 대상인 범일국사

강릉단오제에서 모시는 주신(主神)이며, 강릉출신의 인물이 신격화되어 있는 범일국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를 묻는 문항이었으나, 인지도는 아주 낮은 편이었으며, 가장 오답자가 많은 문항이었다. 강릉오죽헌의 인물인 율곡이이 선생의 인지도의 영향으로 57.8% 학생들이 ‘율곡이이’로 잘못알고 있었다. 정답인 ‘범일국사’라고 응답한 학생은 32.2%에 불과하였고, 이 문항은 모르는 학생들이 67.8%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보다는 대학생이 정답을 알고 있는 학생이 11.6%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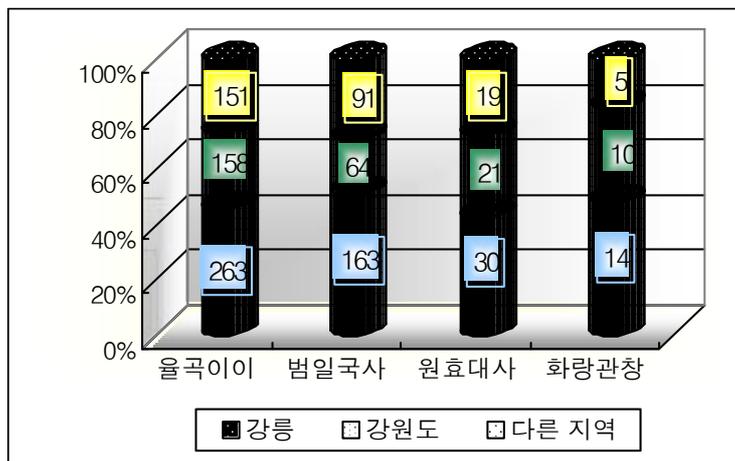


<그림 II-16 제사의 대상>

구분	단오제에서 제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				전체 (100%)
	울곡이이	범일국사	원효대사	화랑관창	
대학생	249(50.4%)	188(38%)	37(7.4%)	21(4.2%)	495
고등학생	323(65.2%)	131(26.4%)	33(6.6%)	8(1.6%)	495
전체	572(57.8%)	319(32.2%)	70(7.1%)	29(2.9%)	990

<표 II-20 제사의 대상>

고등학생의 경우 강릉에서 태어난 학생이 6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¹²⁾ 범일국사라고 정답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32%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범일국사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태어난 곳에 관계없이 강릉출신(16.6%)이나 다른 지역(15.7%)출신이나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림 II-17 출생지별 제사의 대상>

12) <표 II-3 응답자 구분별 출생지>참조.

구 분	단오제에서 제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				전 체 (100%)
	울곡이이	범일국사	원효대사	화랑관창	
강 령	263(26.6%)	164(16.6%)	30(3%)	14(1.4%)	471
다른 지역	309(31.3%)	155(15.7%)	40(4.1%)	15(1.5%)	519
전 체	572(57.8%)	319(32.2%)	70(7.1%)	29(2.9%)	990

<표 II-21 출생지별 제사의 대상>

나. 민속영역 분석

민속¹³⁾은 인간이 자기가 속한 자연·역사·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하여 지혜와 신앙으로 엮어낸 생활풍속이다. 민속분야에서는 국내유일의 무언가면극을 통해 등장인물의 재치와 익살, 그리고 갈등을 통한 사랑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는 관노가면극과 시민들의 정성으로 모은 신주미로 신(神)에게 바칠 술을 정성껏 비는 신주빛기의 장소인 칠사당(七事堂)을 학생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1) 관노가면극

풍요와 다산, 공동체 질서회복을 주제로 하여 양반과 각시의 사랑이야기를 다루는 강릉단오제의 명물인 관노가면극의 인식여부를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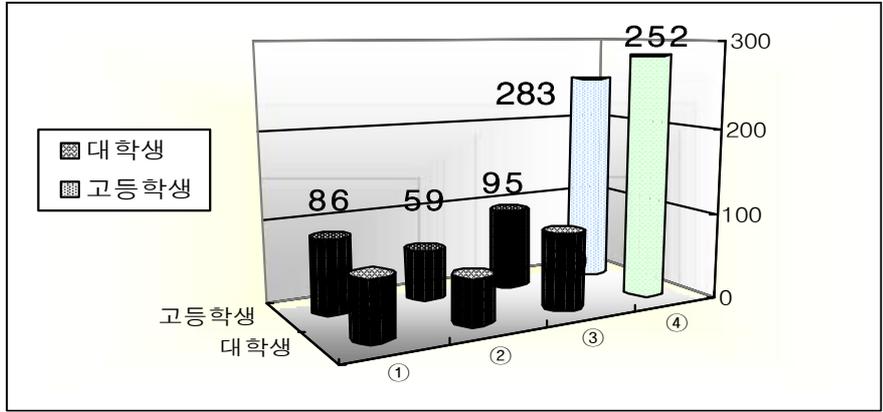
관노가면극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에서 전체 학생들의 54.3%가 정답을 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강릉단오제위원회의 적극적인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전승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46.7%의 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에 비해 대학생이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이 약 6%정도 많았다.

구 분	관노가면극				전 체 (100%)
	강릉지역에만 있다	대사가 없다	양반, 노비등장	희비극이다	
대 학 생	69(14%)	53(10.8%)	89(18%)	283(57.4%)	494
고등학생	86(17.4%)	59(12%)	95(19.2%)	252(51.2%)	492
전 체	155(15.7%)	112(11.4%)	184(18.7%)	535(54.3%)	986

<표 II-22 관노가면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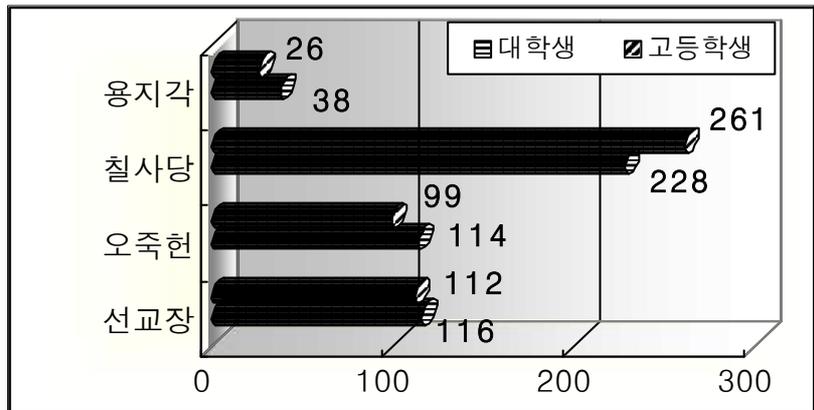
13)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國語大辭典』. 금성출판사, 1991.



<그림 II-18 관노가면극>

(2) 신주 빛는 곳

강릉단오제의 시작은 강릉시민들이 정성으로 모은 신주미로 신주빚기부터 시작이 된다.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만큼 중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신주를 빚는 칠사당의 인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그림 II-19 신주 빛는 곳>

구 분	신주 빛는 곳				전 체 (100%)
	선 교 장	오 죽 헌	칠 사 당	용 지 각	
대 학 생	116(23.4%)	114(23%)	228(45.8%)	38(7.6%)	496
고 등 학 생	112(22.6%)	99(20%)	261(52.6%)	26(5.2%)	498
전 체	228(22.9%)	213(21.4%)	489(49.2%)	64(6.4%)	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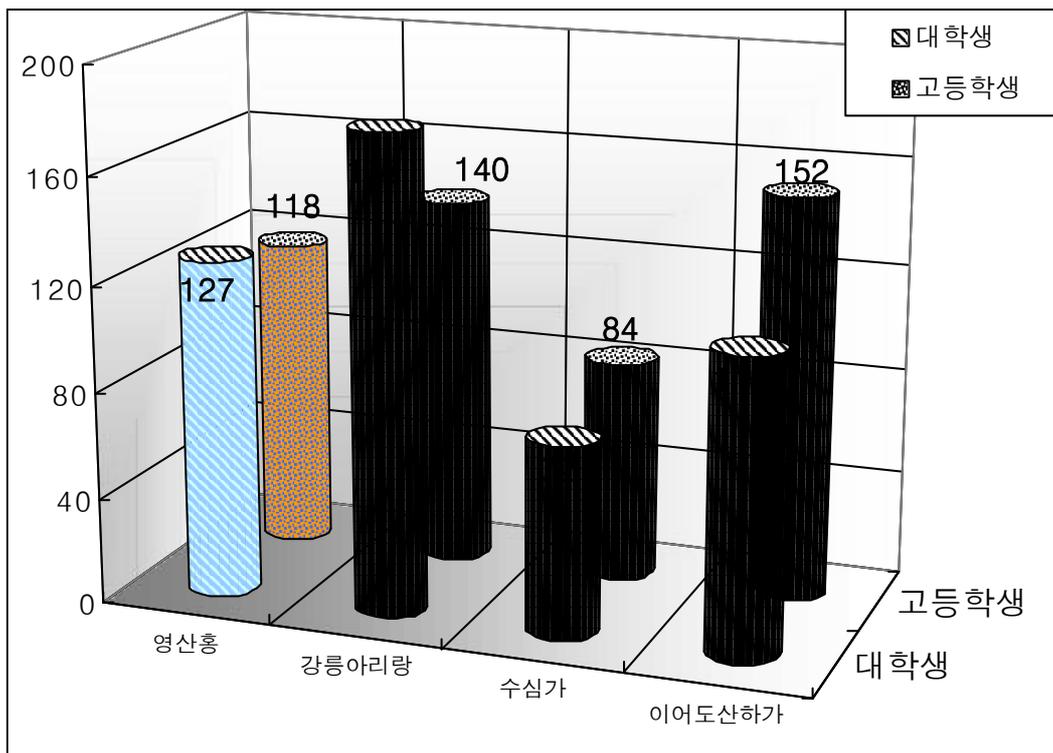
<표 II-23 신주 빛는 곳>

신주 빛는 장소를 묻는 문항에서 전체 49.2%의 학생들이 정답을 알고 있었으며,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약 7% 정도 많았다. 그러나 선교장, 오죽헌으로 잘못 알고 있는 학생이 4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장소로는 선교장과 오죽헌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매우 적었다.

다. 민요, 전설영역 분석

(1) 대관령 국사성황을 강릉으로 모셔오면서 부르는 민요

대학생의 25.8%, 고등학생의 24%가 ‘산유가(영산홍)’ 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강릉아리랑’ 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전체 32.5%나 있었다. 정답을 알고 있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은 비슷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가장 많은 31%가 오답 중에 ‘이어도산하가’ 라고 응답하였다. 이 문제의 난이도가 가장 어려웠으나, 단오 리플렛에 있는 내용이며 예문에 제시된 수심가, 이어도산하가는 중·고교과정의 교과목에 수록되어 있는 민요들이다.



<그림 II-20 강릉민요-영산홍가>

구 분	대관령 국사성황을 강릉으로 모셔오면서 부르는 민요				전 체 (100%)
	산유가(영산홍)	강릉아리랑	수심가	이어도산하가	
대 학생	127(25.8%)	179(36.4%)	72(14.6%)	111(22.6%)	489
고등학생	118(24%)	140(28.4%)	84(17%)	152(31%)	494
전 체	245(24.9%)	319(32.5%)	156(15.9%)	263(26.8%)	983

<표 II-24 강릉민요-영산홍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릉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학생이나 다른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나 정답률은 비슷하며,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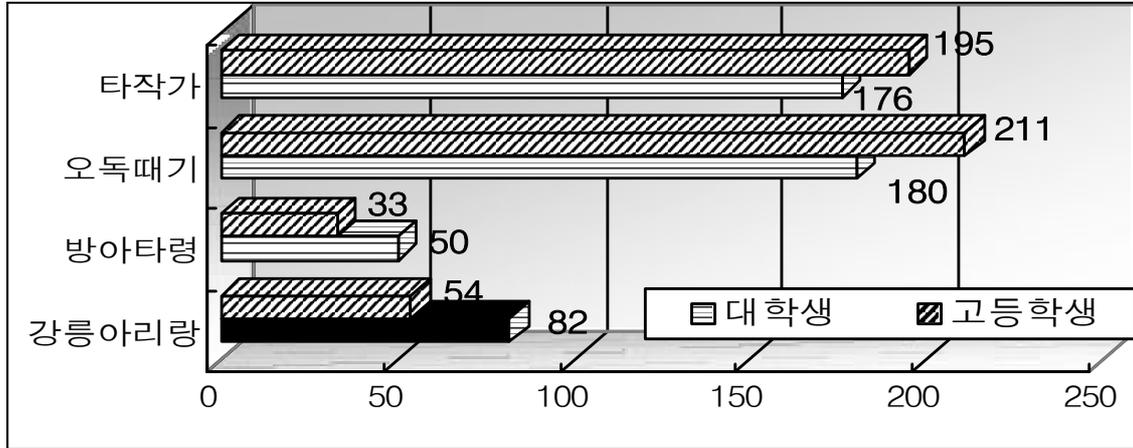
구 분	대관령 국사성황을 강릉으로 모셔오면서 부르는 민요				전 체 (100%)
	산유가(영산홍)	강릉아리랑	수 심 가	이어도산하가	
강 령	121(12.3%)	142(14.4%)	72(7.3%)	133(13.5%)	468
다른 지역	124(12.6%)	177(18.1%)	84(8.6%)	130(13.2%)	515
전 체	245(24.9%)	319(32.5%)	156(15.9%)	263(26.8%)	983

<표 II-25 출생지별 구분 강릉민요-영산홍가>

(2) 강릉 학산 지역의 민요

고등학생은 ‘학산’의 지역의 민요를 ‘오독때기’로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이 43%로 가장 많았으나, 대학생의 가장 많은 44%가 ‘타작가(타작노래)’로 잘못 알고 있었으며, 고등학생 역시 39.8%나 되는 학생들이 ‘타작가(타작노래)’로 잘못 알고 있었다.

학산 지역의 민요(40%)와 전설(34.9%), 대관령 국사성황을 강릉으로 모셔오면서 부르는 민요(24%)를 묻는 문항 역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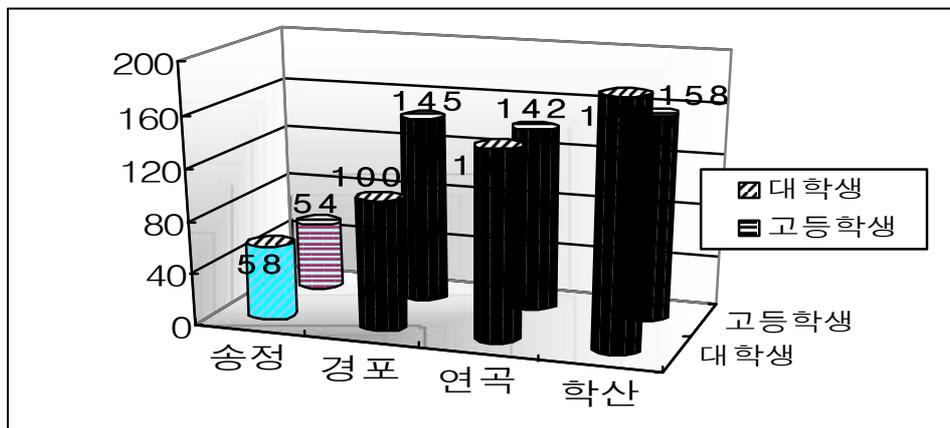
<그림 II-21 학산 지역의 민요>

구분 (Category)	'학산' 지역의 민요 (Folk Songs in the 'Haksan' Region)				전체 (100%) (Total)
	강릉아리랑 (Gangneung Arirang)	방아타령 (Bangataeryeong)	오독때기 (Odoktaegi)	타작가 (Tajakga)	
대학생 (University Student)	82(16.8%)	50(10.2%)	180(36.6%)	176(44%)	488
고등학생 (High School Student)	54(11%)	33(6.8%)	211(43%)	195(39.8%)	493
전체 (Total)	136(13.9%)	83(8.5%)	391(39.9%)	371(37.8%)	981

<표 II-26 학산 지역의 민요>

(3) 설화가 내려오려는 지역

전체 34.9%의 학생들이 '학산' 이라고 정답을 알고 있었으나 그 이외의 연곡 29%, 경포 24.8%라고 응답했다. 고등학생에 비해 대학생이 약 5%정도 정답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



<그림 II-22 설화가 내려오려는 지역>

구 분	설화가 내려오려는 지역				전 체 (100%)
	송 정	경 포	연 곡	학 산	
대 학 생	58(11.8%)	100(20.2%)	145(29.4%)	187(37.8%)	490
고등학생	54(11%)	145(29.4%)	142(28.8%)	158(32%)	499
전 체	112(11.3%)	245(24.8%)	287(29%)	345(34.9%)	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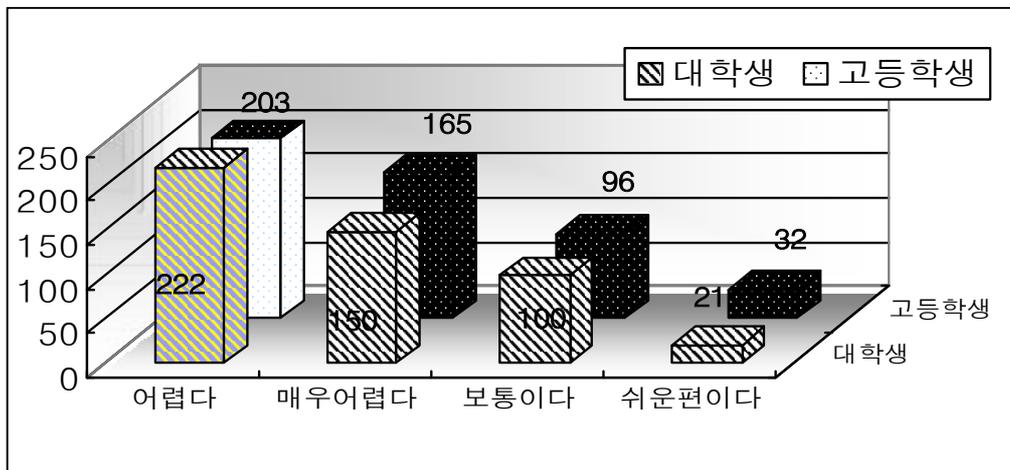
<표 II-27 설화가 내려오려는 지역>

민요와 전설 문항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선 이 항목들이 농촌의 기계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전승이 거의 단절되어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며, 학교나 일상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민요나 전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부록 3-35>, <부록 3-37>에 의하면, 주 성장지가 강릉지역인 학생들과 그 외지역의 학생들의 민요 및 전설에 대한 인지도에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4) 각 문항 난이도 및 정답률 분석

강릉단오제의 「민속·인물·전설·민요」 등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는 7문항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질문이다. 전체 학생의 43%가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했고, 매우 어려웠다고 응답한 학생이 31.9%, 보통이다가 19.8%, 쉽다고 응답한 학생은 5.4%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과 고등학생도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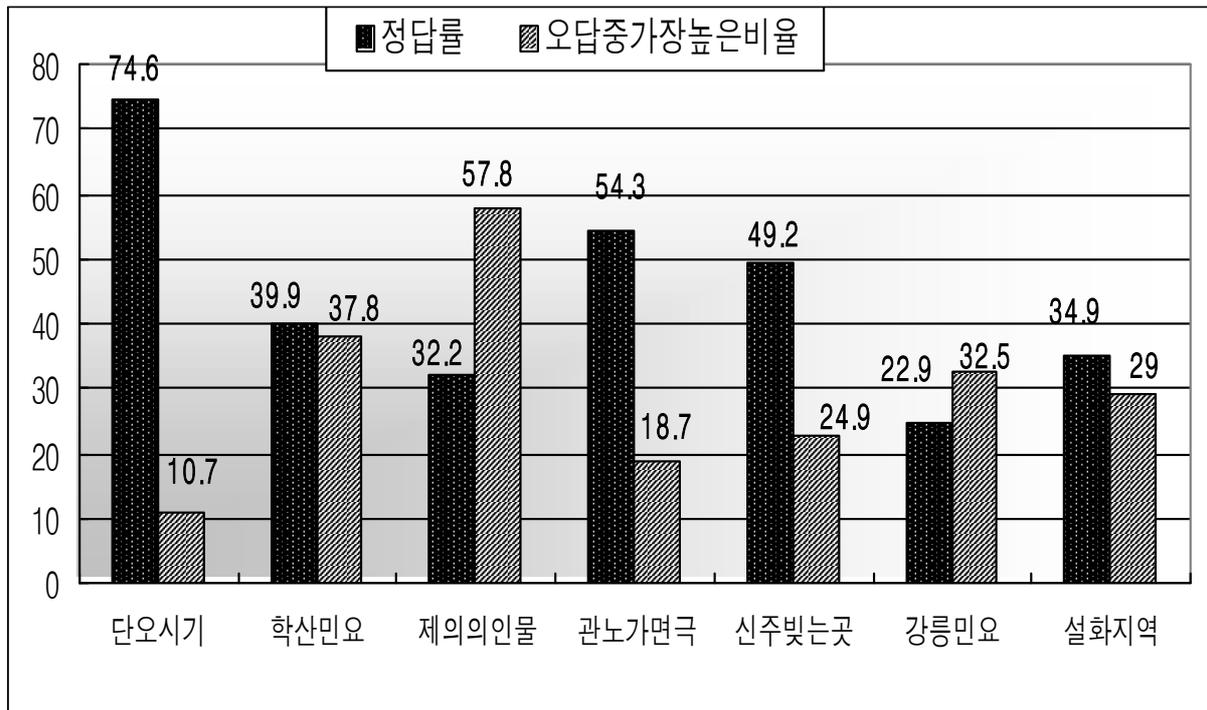


<그림 II-23 문제의 난이도>

구 분	문제의 난이도				전 체
	매우 어려웠다	어려운편이다	보통이다	쉬운편이다	
대 학 생	150(30.4%)	222(44.8%)	100(20.2%)	21(4.2%)	493
고 등 학 생	165(33.4%)	203(41%)	96(19.4%)	32(6.4%)	496
전 체	315(31.9%)	425(43%)	196(19.8%)	53(5.4%)	989

<표 II-28 문제의 난이도>

다음 그래프는 각 문제별 정답률과 오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단오제의 시기를 물어 보는 문제가 정답률이 가장 높았고, 제사의 대상을 물어보는 문항이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 정답률이 50%가 넘는 문항은 2문항이었다.



<그림 II-24 문제별 정답률 및 오답률 분석>

Ⅲ. 결 론

강릉단오제는 일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조들, 그것도 민중들의 생활 습관들이 쌓이고 모아져 이루어졌다. 강릉단오제는 선조들의 숨결이 스며있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강릉단오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강릉단오제는 조선시대에 상층 양반 및 관료, 농민, 어민, 상인, 관노 등 모든 계층이 함께 참여한 지역축제로서 특정계층의 한계를 넘어 현재까지 전승되어 오면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공동의 장이되었다. 민중을 삶에 어우르고 삶의 기복과 응어리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며, 모든 것이 단오축제 안에서 갈등을 풀어나가는 공간, 젊은 세대는 이전세대에게 전통문화를 전수받아 계승하여 발전적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민속적 사실에 치중하여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날 사회에서 축제가 갖는 극적인 재미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문화소비 계층의 중심인 청년층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림Ⅱ-5>와 <표Ⅱ-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단오제에 관심은 있었으나,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단오제는 난장내의 각종 오락, 게임, 물건사기, 사람 구경 등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시골난장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관심이 참여의 측면과 어울림, 모두 함께 흥겨워하는 대동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오락, 게임, 서커스 등은 필요충분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난장내의 주변적 사항들이 단오제가 가져야 할 본래적 의미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기능을 잃게 하고, 상업적이고 향락적인 성격을 드러내도록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점차 자라나는 차세대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갖게 하려는 오히려 역기능(逆機能)을 불러 일으켜 단오제의 본 기능을 퇴색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이 전통문화를 제대로 인식 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서 단오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단오제에 대한 학생들의 오도된 인식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강릉단오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관심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시켜 계승·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작업이 관건이다.

이에 강릉단오제의 계승·발전을 위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보겠다.

첫 번째로, 정규교육과정 속에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어 바르게 인식 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고등·대학교에서 강릉단오제나 지역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은 <표 II-12>, <표 II-13>을 참조하였을 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관심은 있었으나,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단오제는 사람구경, 물건사기, 각종오락 등의 유락시설이나 경축행사로 대변될 정도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은 상업적, 향락성을 띄어가는 단오제의 변질 탓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입시위주 교육에 치중하게 하는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전국이 획일화되는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 교육청 및 지역 관할 학교, 관련단체의 연계를 통하여 어느 정도 지역사회문화와 유적·명승지 등을 학기 중 일정시간 교육하는 교육이 병행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자율권을 교육청에서 허가하여 관련단체가 교육을 담당하고 지역 학교에서 협조한다면,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은 자연스럽게 다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강릉단오제위원회에 단오전문 강사나 강릉문화유산 해설 강사를 집중 육성하여 정규교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 학교에서 파견 강의를 하는 방안과 지역 중·고등학교의 역사, 사회 선생님들을 연수 혹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단오제의 의미를 교육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강릉이 문화예향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명성에 걸맞은 문화행사를 강릉단오제와 연관시켜 확대하여야 한다.

강릉이 전통적으로 문화예향의 도시라고는 한 해 동안 치러지는 문화행사는 강릉단오제, 허균허난설헌문화제, 대현율곡이이선생제 등 3가지라 할 수 있겠다.

각종 민요, 전설, 민속 등 전통문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속 문화를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며, 허균허난설헌문화제, 대현율곡이이선생제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특정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만이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시상식이 있어야 문화행사라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단오기간 전·후로 단오학생하프마라톤, 단오등반대회, 라디오티어링대회,

단오연극문학제 등을 통하여 재미와 흥미도 느낄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신성하고, 단오e-sport대회, 단오전설구연대회, 강릉지역 초·중·고교 축구대회 등 변화하는 신세대 감각에 맞춘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하여 학생의 관심과 흥미도를 높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강릉단오제의 정해진 프로그램 틀에서 모든 사람들이 맞추려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단오’를 통하여 만들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단오를 테마로 한 마라톤과 등반대회, 방송사를 통한 라디오티어링 대회 등의 주 코스를 대관령 옛길(제왕산)에서 구산, 학산 등 단오제의 행사를 하는 곳으로의 유적답사프로그램으로 연계시켜서 단오제의 의미를 느껴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현재 강릉단오제 기간에 열리는 공연에는 강릉단오제의 전설을 보여주는 공연이 없다. 단오제의 주신은 대관령국사성황신인 범일국사의 탄생에 얽힌 일화와 그의 행적에 대한 것이나, 대관령국사여성황신인 정씨가 처녀를 호랑이를 보내어 데려다 아내로 삼았다는 전설을 현대판 무언극으로 재연을 하거나 연극, 뮤지컬로 승화시켜 강릉단오제의 전설을 어린이, 학생, 어른 등의 모든 계층이 극을 보며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된다면 단오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세 번째로 홍보시스템의 전략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강릉단오제위원회의 주요 홍보활동은 현수막과 팸플렛, 홍보책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요즘은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사용되어온 단오 캐릭터인 양반, 각시, 시시딱딱이, 악사, 무녀를 기념우표로 제작하거나 홍보용 포스터에 삽입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각종생활용품에 접목시켜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일상생활에서 단오와 함께하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오 캐릭터를 이용한 핸드폰 고리, 우산, 양말, 장갑, 열쇠고리, 다이어리, 일반 컵, 접시, 일회용 종이컵이나 접시 등 시각적인 기념품 판매가 아닌 생활 속에서의 함께 생활하는 실용성에 바탕을 둔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강릉지역 3개 대학교의 신입생들은 입학선물로 각 대학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다이어리를 증정하는데 다이어리 내용에 지방문화를 소개하는 글이나 강릉단오제에 대한 소개 글과 사진을 2~3장정도 같이 실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각 대학교와 고등학교에는 교지 편집국과 신문동아리가 있는데, 학교의 교지나 신문사와 협조를 통하여 강릉단오제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록하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록-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학교까지 통학하는 학생들이 32.3%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버스 정류장에 단오가 시작하기 전과 기간 중에는 일정, 행사공연에 대하여 알려주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단오가 끝난 후에는 계몽포스터를 정류장이나 홍보용 게시판, 각 학교들의 게시판에 부착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 역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 번째로, 기독교 문화의 적극적 참여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강릉단오제는 무속·불교·유교·도교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 이제는 유교적 전통에서 세계화·글로벌화 추세로 이전되어 가는 길목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는 현대의 기독교¹⁴⁾ 문화의 참여유도로 현실참여와 문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기독교 문화의 가장 큰 강점은 각 계층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현재 단오제에서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II-6>와 <표 II-9>을 참조하면, 학생들은 강릉단오제에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그러한 관심이 유락적인 시설로 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러한 것은 학생층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현재 단오제 프로그램의 부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제를 기독교의 'Festival' 측면과 문화공유 측면을 부각시켜 젊은 층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섯 번째로, 현재 단오장의 물가를 저렴하게 해야 한다.

현재 단오장의 물가는 시중 물가와 비슷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민 역시 부담을 느낀다. 난장 내의 상가는 외지 상인들이 입찰을 통하여 상가를 분양받아 난장에 참여하여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값을 올리는 경향이 강하다.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는 상가분양 가격을 대폭 낮추는 대신 난장내의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여 시중물가보다 저렴하게 하여 박리다매(薄利多賣)의 방식으로 단오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14) 박양자. 「강원도의 사상적 전통과 정체성 정립방안」. 『강원의 얼 선양 학술세미나』. 강원개발연구원, 1997. p.56.

낮추어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오장에서 1명의 학생이 단오장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한다고 하였을 때 개인당 최대 5000원정도 한다고 한다면, 시내 중심가의 패스트푸드점과 단오장 내의 식당을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기타의견으로 테마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대관령 산신인 김유신 장군과 연계시켜 화랑도의 모습을 재연하는 프로그램의 신설과 화랑도 훈련장, 시가행진 등 화랑도의 기상과 사상을 청소년들에게 각인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속초시와 연계하여 마련하는 것과 현재 사기막에 있는 강문 진또배기 깎기 프로그램을 단오체험존에 설치하여 단오 문화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를 함께 알릴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현재 관노가면극을 기존의 것을 보호한다고 하여 오히려 계승·발전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조선시대의 양반과 노비간의 사랑을 재현한 것은 조선시대의 신분제라는 사회상을 풍자와 해학(諧謔)으로 극(劇)을 통하여 표출한 것을 지금의 학생들이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문화는 시대를 반영하는 법’이라고 하였다. 이에 현재의 관노가면극은 그대로 전승하고 현대적인 정서를 대변하고 복합적인 현대적 요소(음향, 조명, 무대장치)를 적용하여 완성도를 높인 新관노가면극¹⁵⁾을 재창조 하는 것이다. 보는 것에서 듣고, 느끼고, 가슴으로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며 젊은 층이 新관노가면극을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세기가 지난 뒤, 현재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문화의 발전적 측면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중 학생참여 방안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우리는 강릉단오제에 서려있는 선조들의 숨결을 인식하여야 하며 현재 지역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20년 후에는 지금의 세대가 강릉단오제를 계승·전승하여 명맥을 이어갈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학생들이 전통문화에 대하여 그 본래적 의미와 성격을 왜곡·변질시키지 않고 현실성 있는 행사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대생활에 맞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강릉단오제는 진정한 민족의 전통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5) 현재의 관노가면극은 신분제의 틀 속에서 극으로써 승화시켰다면, 신(新)관노가면극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는 ‘정치인과 일반시민’등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시킨 극을 말하는 것이다.

IV.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릉단오제보존회. 『해설을 통한 단오제 열배 즐기기』, 2002.
- 강릉단오제위원회. 『수릿날, 강릉』, 2006.
- _____. 『2003 강릉단오제 개선방안에 대한 출제평가 학술조사』, 2003.
- _____. 『2004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서』, 2004.
- _____. 『2005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서』, 2005.
- _____. 『2006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서』, 2006.
- _____. 『2001 행사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 강릉문화원. 『강릉단오제 백서』, 1999.
- _____. 『강릉단오제 관광민속 축제로의 경영전략화 방안 모색』, 2003.
- _____. 『江陵市史(上)』, 1996.
-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강릉문화정체성 연구』, 2001.
- _____. 『강릉단오제 중장기 발전방안』, 2000.
- 강원도. 『강원의 설화 III』. 강원도지사, 2005.
- 안광선.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로 간 까닭』. 민속원, 2003.
- 황루시. 『우리무당이야기』. 풀빛출판, 2000.
- _____. 『팔도 굿』. 대원사, 1990.

2. 학술지

- 박양자. 「강원도의 사상적 전통과 정체성 정립방안」. 『강원의 얼 선양 학술세미나』. 강원개발연구원, 1997.
- 이규대. 「강릉단오제 재인식과 과제」. 『우리문화』 제 2호, 강릉우리문화연구회, 1994.
- 이성주. 「단오제의 시간과 공간, 그 의미의 활용」. 『강대사학모음집』, 2006.
- 장정룡. 「강릉단오제의 민속학적 연구」. 『인문학보』 제 21집, 인문과학연구소, 1996.

- _____. 「강릉단오축제의 전승의미론」. 『우리문화』 창간호, 강릉우리문화연구회, 1994.
- 황루시. 「강릉단오제의 특징」. 『한국민속학회소식』, 한국민속학회, 1995.
- _____. 「강릉단오제의 정통성과 지속성」. 『역사민속학』,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3. 논 문

- 김남일. 「지역개발 전략으로서 지역문화축제의 구조 및 특성-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2003
- 김선흥·김경남. 『강릉 단오제 연구』. 보고서, 2002.
- 이해준. 「지역문화 연구의 과제와 자료 활용 방향」. 공주대, 2002.
- 장정룡. 「지역 축제 자원화와 문화적 계승전략-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강원개발연구원, 1998.
- 함석중. 「지역축제의 국제화를 위한 비교연구-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005
- _____. 「지역관광진흥을 위한 향토문화제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관광개발논총』. 한국관광연구학회, 1996.

3. 기 타

- 전창협. 《E-세상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률’》. HERALD MEDIA(해럴드 경제) 사회면 기사 인용, 2007년 2월5일.

강릉단오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조사 설문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학생여러분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 강릉단오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찾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분석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릉대학교 사학과 박부원

☞ 귀하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께서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 ① 강릉시 ② 강릉시이외의 강원도 지역 ③ 다른 지역

3. 강릉에서 거주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① 2년 이하 ② 2년 이상 ③ 4년 이상 ④ 10년 이상

4. 귀하는 댁에서 학교까지의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시내버스 ② 도보 ③ 시외버스 ④ 승합차량, 기타 ⑤ 자가용

1. 중요문화재 제 13호 강릉단오제가 지난 2005년 11월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 ① 모른다. ② 알고 있다.

2. 강릉단오제의 참여여부는 어떻습니까?

- ① 가본 적 없다. ② 가고 싶지만 못가는 편이다.
③ 가능한 가는 편이다. ④ 매년 참여한다.

3. 강릉단오제에 참여하신다면 보통 방문하는 시간대는 몇 시정도입니까?

- ① 10시~ 13시 ② 13시~ 18시 ③ 18시~ 22시 ④ 22시 이후

4. 강릉단오제위원회의 단오문화관에 방문한 적 있습니까?

- ① 처음 듣는다. ② 방문한 적은 없고,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다.
③ 한번 방문한적 있다. ④ 여러 번 방문했었다.

5. 강릉단오제 홈페이지나 단오관련 사이트에 방문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홈페이지가 있는지도 몰랐다. ② 방문해 본 적 없다.
③ 한 번 정도 방문해본 적 있다. ④ 여러 번 방문했다.

6. 강릉단오제나 다른 전통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은 것 있다면?

- ① TV, 라디오, 신문, 잡지등 대중매체의 영향
- ② 인터넷 검색, 활용을 통하여
- ③ 학교의 수업이나 특별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 ④ 주위 친지들이나 부모님에 의해
- ⑤ 문화원, 단오제위원회등 전통문화 관련 단체를 통해 (팸플렛, 홍보물, 교육)

7. 평소 고등·대학교 수업을 통하여 강릉의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을 배울 기회가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는 편이다. ③ 가끔 있는 편이다. ④ 자주 있다.

8. 고등·대학교에서 강릉의 전통문화에 대해 익힐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① 전통문화에 관련된 특별활동이나 동아리 부족
- ② 정규 교과과정에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
- ③ 학점이나 시험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
- ④ 본인의 관심, 흥미 부족
- ⑤ 기타 (_____)

9. 강릉단오제 행사 중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① 단오의 제례, 굿
- ② 민속공연(관노가면극, 강릉농악)과 민속놀이(그네뛰기, 씨름)
- ③ 단오체험촌 (창포머리감기, 수리취떡 만들기, 관노탈 만들기...등)
- ④ 난장내의 각종 오락, 게임, 물건사기, 사람구경
- ⑤ 사투리 경연대회, 경축행사, 불꽃놀이, 해외 민속공연

10. 강릉단오제 행사 중 해외공연단 공연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도는 어떻습니까?

- ① 공연이 있는지도 몰랐다. ② 관심이 없는 편이다.
- ③ 1편 정도는 보는 편이다. ④ 매년 관심 있게 보는 편이다.

11. 지금까지 강릉에서 생활하면서 가본 경험이 있는 유적·명승지에 “○”를 해주시고 동그라미의 개수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포대 () • 오죽헌 () • 선교장 () • 참소리 박물관 () • 객사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산사지 당간지주 () • 허난설헌 생가터 () • 등명락가사 () • 강릉향교 () • 대관령 국사성황당 ()
--	--

- ① 1개 이하
- ② 2개 이상
- ③ 4개 이상
- ④ 6개 이상
- ⑤ 9 개 이상

◎ 다음은 강릉단오제의 역사·민속·인물·전설·민요 등 인지도에 관한 7문항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주세요.

1. 강릉단오제가 열리는 시기는?

- ① 음력 5월 1일 ② 음력 5월 5일
③ 양력 5월 15일 ④ 양력 5월 30일

2. 강릉‘학산’지역에서 모심고, 김매고, 타작할 때 부르던 민요는?

- ① 강릉아리랑 ② 방아타령 ③ 오독매기 ④ 타작가 (타작노래)

3. 강릉단오제에서 제의(祭儀)의 중심이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 ① 율곡이이 ② 범일국사 ③ 원효대사 ④ 화랑관창

4. 관노가면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릉지역에서만 전승, 보존되고 있다.
② 관노가면극은 대사 없이 춤과 몸짓으로 진행된다.
③ 관노가면극은 양반과 노비가 등장한다.
④ 관노가면극은 이별을 주제로 한 희비극이다.

5. 강릉단오제는 매년 4월초정도에 신주(神酒)빚기로 시작이 되는데 신주를 빚는 곳은 어디인가?

- ① 선교장 ② 오죽헌 ③ 칠사당 ④ 용지각

6. 매년 음력 4월 보름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대관령 국사성황을 강릉으로 모셔오면서 부르는 강릉 민요는?

- ① 산유가(영산홍) ② 강릉아리랑 ③ 수심가 ④ 이어도산하가

7. 굴산의 한 양가처녀가 석천의 물을 마시고 아이를 낳았다는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강릉의 지역은 어디일까요?

- ① 송정 ② 경포 ③ 연곡 ④ 학산

8. 지금까지 강릉단오제의 인지도에 관한 7문제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려웠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쉬운 편이다.

※앞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사랑하며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되시길 바라며,

2007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